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233-264  
<https://doi.org/10.29212/mh.2019..1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로마의 대(對) 파르티아 전략: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54~63CE)과 란테이아(Rhandeia) 조약\*

반기현\*\*

1. 서론
2. 제국의 전략?
3. 제3차 미트라다테스 전쟁과 접경화한 아르메니아 왕국
4.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
5. 란테이아 조약의 의의
6. 결론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HK 연구교수

## 1. 서 론

서기 66년 아르메니아 왕국의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네로 황제로부터 아르메니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수여받는 것이었다. 로마에 도착한 그를 네로는 지나치리만큼 환대했고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다. 티리다테스는 파르티아 황제인 볼로가이세스 1세(Vologaeses I: 51-78)의 동생으로 54년부터 이미 실질적인 아르메니아의 왕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왕위 등극은 이전까지 아르메니아 왕국에 대한 수위권을 주장해온 로마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를 전쟁터로 한 로마와 파르티아 간 전쟁이 근 10년간 이어졌다. 몇 번의 영광스런 승리와 쓰라린 패배를 주고받은 뒤, 결국 두 제국은 63년 란데이아(Rhandeia)에서 평화조약을 맺었다. 조약의 핵심 조항은 파르티아 황실인 아르사케스조(Arsacid dynasty) 출신 왕위 후보자를 로마 황제가 아르메니아 왕으로 승인하는 것이었다. 티리다테스는 직접 로마를 방문해서 네로로부터 왕관을 수여받기로 약속했고 3년 뒤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양대 제국이 모두 공인한 아르메니아 최초의 아르사케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반목과 충돌을 거듭해온 로마-파르티아의 관계가 란데이아 조약과 그에 따른 티리다테스 1세의 로마 방문으로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기원전 1세기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로마에게 동쪽 변경 너머의 파르티아는 유일한 라이벌 제국이었다. 비교적 산발적이고 덜 조직적인 종족들의 침입을 상대해야 하는 다른 변경지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다. 맞은편 파르티아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제국간의 경쟁은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

보다는 그들 사이에 놓인 접경지대의 군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메니아 왕국 또는 왕권에 대한 통제력 행사 여부가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능했다. 서기 63년 란데이아 조약은 그러한 역학관계 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로마-파르티아 간 ‘아르메니아 문제’는 종속적으로만 다뤄지거나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더욱이 ‘완충국가(buffer state)’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다.<sup>1)</sup>

아르메니아 왕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의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로마 역사가들의 서술에서 변경 정책 및 방위와 관련해서 아르메니아를 다룬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로마 제국의 전략’, 정확히는 ‘제국의 방어 전략’ 자체에 대한 학계의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줄만한 아르메니아 역사가들의 기록이 대부분 민족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서술 위주라 사료로써의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록들을 적절한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 현대 아르메니아 학자들의 연구 또한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로마-파르티아 간 제국주의 경쟁과 대외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아르메니아 왕국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아르메니아 왕국을 단순히 로마 제국의 동쪽 변경이나 파르티아 제국의 서쪽 변경이 아닌, 두 제국들의 ‘접경지대(Borderland 또는 Contact Zone)’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볼 필요

1) 로마의 대 파르티아 정책 관련 일반서술은 얼마 전 작고(2019년 7월 15일)한 밀라(F. G. B. Millar)의 글(Millar 1982: 1-23; 1993: 66-68, 99-105, 111-112, 437-481)과 캠프벨(B. Campbell)의 글(Campbell 1993: 213-240), 그리고 조영식의 논문(2013: 123-155)을 참고. 캠프벨은 아르메니아 왕국을 ‘완충국가’로 묘사하는 것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Campbell 1993: 220-221). 로마가 아르메니아를 ‘완충국가’로 고려했다고 판단하기엔 전략적인 관리가 소홀했고 아르메니아 왕권에 대한 통제도 명목상 권한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가 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측 사료들에 대한 검증과 새로운 관점 제시 등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서기 5세기 초에 독자적인 글을 만들었고 아가탄겔로스(Agathangelos), 모세스(Moses of Khorene/*Movsēs Xorenac'i*), 파우스투스(Faustus/*P'awstos*)같은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교사자들이 자국사를 썼다.<sup>2)</sup> 이들 가운데 아가탄겔로스와 파우스투스는 서기 3세기 전후를 다루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모세스만이 기원부터 서기 5세기 말까지 아르메니아의 통사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스를 ‘아르메니아 역사의 아버지’ 또는 ‘아르메니아의 헤로도토스’로 부르기도 한다.<sup>3)</sup>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시기에 대한 모세스의 언급이 극도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시기가 그리스도교사자들이 각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시대(Apostolic Age)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사 위주로 서술된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티리다테스 1세가 로마와 평화조약을 맺은 결과 직접 로마까지 가서 네로에게서 왕관을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up>4)</sup> 따라서 이 시기를 재구성하려면 로마 측 사료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서기 1세기 로마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타키투스(Tacitus)의 『연대기(Annales)』는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수에토니우스(Suetonius)와 카시우스 디오(Cassius Dio)의 기록도 필수적이다. 여기에 최근의 고고학 성과들과 아르메니아 연구자들의 연구를 더하면 실제에 한

2) 반기현 2019: 173-174, 각주 9), 10).

3) Chahin 1987: 304.

4) 모세스는 서기 1세기를 철저히 교회사 위주로 서술한다(*Movsēs Xorenac'i* 2.27-35). 아르메니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인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와 다대오(Thaddaeus)의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다대오가 개종시킨 에데사(Edessa)의 압가르 5세(Abgar V)가 예수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냈다는 서신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이 논문의 목적은 로마의 대(對) 파르티아 전략에서 아르메니아의 위치를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54~63CE)과 그 전쟁을 종결지은 63년 란데이아 조약(Treaty of Rhandeia)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우선 ‘로마 제국에 전략이 존재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략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선결되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원전후 1세기 동안 아르메니아가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서 ‘접경화’ 또는 ‘완충지대화’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계속해서 서기 1세기 중반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종결지은 63년 란데이아 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66년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의 로마 방문이 갖는 전략적 의의에 대해 논한다.

## 2. 제국의 전략?

로마 제국에 전략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1976년 ‘대 전략(Grand Strategy)’에 대한 러트왁(E. W. Luttwak)의 저서인 『1-3세기 로마 제국의 대전략(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Third)』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sup>6)</sup> 1년 전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이 책에서 그는 ‘로마 제국의 방위 전략’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서

5) Hovannisian 1997; Bournountian 2002; Panossian 2006; Manandyan 2007; Soutanian 2012; Stepanyan and Minasyan 2013: 14-33.

6) Luttwak 1976.

술했다.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68년까지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조 (Julio-Claudian dynasty)의 ‘피보호국가와 기동군(Client States and Mobile Armies)을 활용한 방어’, 69년에서 235년까지 플라비우스-안토니누스-세베루스조(Flavian-Antonine-Severan dynasties)의 “‘체계적인’ 변경과 예방적 방어(“Scientific” Frontiers and Preclusive Defense)’, 그리고 3세기 이후의 ‘중심방어(Defense-in-Depth)’ 전략이었다. 그의 주장은 로마 제국에 변경 지역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전략으로서의 ‘대전략’이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비전문가(국제관계학 전에는 경제학을 전공했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1차원적인 반응에서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주장이라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이 비전문가의 주장이 단순히 맞고 틀림의 차원을 넘어 학계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까닭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 논쟁에 가담해 저마다 그를 인용해서 생산적인 연구결과물들을 쏟아내었기 때문이다. 만(J. C. Mann), 밀라, 아이작(Benjamin Isaac), 휘태커(C. R. Whittaker), 캠벨 등이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경우였다.<sup>7)</sup> 반대의 주된 근거는 제국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싱크-탱크(think-tank)’로 기능하는 “전략적 의사 결정 조직(strategic decision-making group)”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략적 고려에 따른 계획 및 시행으로 임할만한 사료가 극도로 빈약하다고 했다. 전략적인 결정을 했을법한 황제 본인이나 측근들도 대부분 군사적으로 문외한이었고 장기적인 방위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변경의 지리 및 지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데에도 소홀

7) Mann 1979: 175-183; Millar 1982: 1-23; Isaac 1992: 372-418; Whittaker 1994: 49-97; 1996: 25-41; Campbell 2002: 16-21.

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 명령(*imperium*)의 최종 결정권자인 황제는 결코 군사 부문에 있어 문외한이 아니었다. 1-3세기 황제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조에서 세베루스조에 이르기까지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도미티아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들 젊은 시절 군 경력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심지어 3세기부터는 군인황제들의 시대가 이어졌다. 황제 주변의 측근들(*amici* 또는 *comites*)이나 황제 자문위(*consilium principis*) 또한 마찬가지였다. 근위대장(*praefectus praetorio*)을 비롯해 서기관(*ab epistulis*)과 재무관(*a rationibus*), 그리고 황제의 대리인(*legatus*)으로 속주 총독이나 변경의 군단장으로 파견되는 원로원 의원들이나 기사계층(*equites*)도 군을 모르지 않았다.<sup>8)</sup> 대부분 20대 초에 참모장교(*tribunus laticlavus*)로 1년 정도를 복무했고 이후 의도적으로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크고 작은 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충분했다. 황제 후계자와 함께 군공을 쌓았고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원정에 동행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의 최고위층(*primores civitatis*)’으로 황제에게 필요한 군사적 조언들을 해주었다.<sup>9)</sup> 물론 이들의 군사 지식이나 정보 획득력을 펜타곤(The Pentagon)이나 란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일하는 전략 통들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 지식이나 경험 면에 있어서 일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로마 제국의 전략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시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전시 자원을 창출하며 민심이 이반하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만 한 것들이었다.

8) 기원전후 1세기 로마 군대에서 군사령관들의 군 경력과 역할에 대한 배은숙의 연구(2007: 131-159)를 참조.

9) Mattern 1999: 5-18.

합리적인 병력 선발 과정과 인센티브에서 군 경력을 통한 사회적 유동성 실현, 군인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규제, 병력들을 동원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보호자로서 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프로파간다 작업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변경지역에서 목격되는 군대 운용 및 배치는 다분히 전략적이라 할 만한 것들이었다.<sup>10)</sup> 궁극적으로 당시 로마나 파르티아 같은 대제국들의 변경 및 외교 정책이나 군사 배치, 이동, 보급 같은 것들은 그 주변부에 존재했던 왕국이나 부족국가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대전략’이라 할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것들이었다.

### 3. 제3차 미트라다테스 전쟁과 접경화한 아르메니아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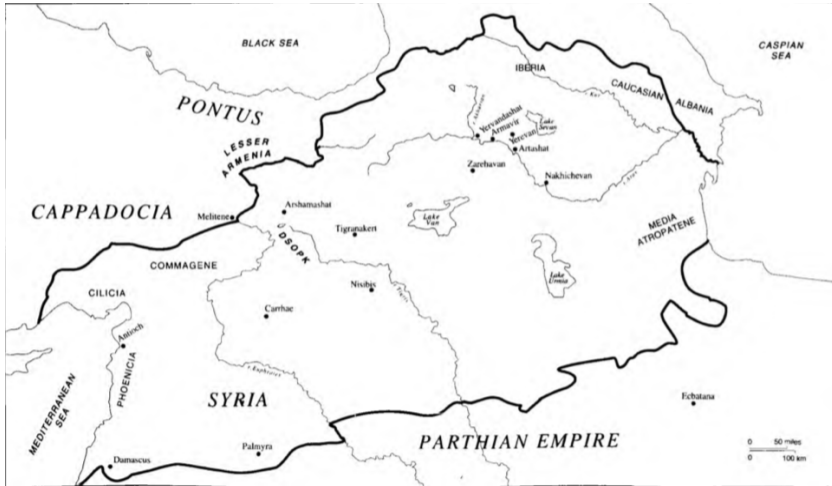
미트라다테스 전쟁은 로마와 아르메니아가 처음으로 충돌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당시 아르메니아 왕국은 훗날 대왕으로 알려지게 될 티그라네스 2세(Tigranes II) 지배하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기원전 95년 재위에 오른 티그라네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쪽 변경의 소페네(Sophene)를 병합하고 폰투스(Pontus)의 왕 미트라다테스 유파토르(Mithradates Eupator)의 딸 클레오파트라(Cleopatra)와 결혼한 것이었다. 이 두 야심가의 결혼 동맹은 당시 동방의 정세에서 꽤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여러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다.<sup>11)</sup> 그도 그럴 것이 결혼 동맹으로 동부 전선에 대한 우려를 없앴 미트라다테스는 과감하게 서부로 세력을 확장해

10) Ban 2015.

11) Plut. *Vit. Luc.* 22.1; App. *Mith.* 21.104; Just. *Epit.* 38.3.1-2.



나갔고 93년엔 티그라네스의 도움으로 카파도키아(Cappadocia)를 점령하더니 아들인 아리아라테스(Ariarathes IX)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카파도키아의 왕이었던 아리오발자네스(Ariobarzanes I)가 로마로 피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로마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로마 원로원은 킬리키아(Cilicia) 속주의 총독이었던 술라(Sulla)를 급파하여 미트라다테스와 티그라네스가 카파도키아에 주둔시켰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아리오발자네스를 복위시켰다.



기원전 80년 경, 티그라네스 2세 지배 하 아르메니아 왕국<sup>12)</sup>

한편, 티그라네스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부와 남부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특히, 90년에는 자신이 과거 인질 생활을 해야 했던 파르티아와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였다. 85년에는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하듯 파르티아식 ‘왕중의 왕(*šāhān šāh*)’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시리아

12) Bournountian 2006: 139, map 8.

북부, 콤마게네(Commagene), 킬리키아, 페니키아(Phoenicia) 지역까지 병합하면서 왕국의 강역을 잠시나마 지중해 동부에서 카스피 해에 이르는 아르메니아 역사상 최대 판도로 확장했다(위 지도). 그리고 70년경에는 오랜 수도 아르탁사타(Artaxata)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수도 티그라노케르타(Tigranocerta)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sup>13)</sup> 티그라네스는 새로운 수도를 그리스와 파르티아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미트라다테스로부터 ‘인류통합(*homonoia*)’의 개념을 전해 받은 듯하다.<sup>14)</sup> 특히, 새로 점령한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부터 많은 수의 그리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sup>15)</sup> 이 과정은 아르메니아 역사가 모세스와 파우스투스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때 티그라노케르타 말고도 여러 도시들에 그리스인들이 이주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sup>16)</sup> 그리스 문화는 훨씬 이전부터 신들의 이미지와 함께 아르메니아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러나 그리스-아르메니아-파르티아의 문화적 통합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반면, 로마의 칼은 빨랐다. 로마 측의 기습적인 공격이었다고 해도, 그리고 로마 역사가들이 티그라네스의 병력을 터무니없이 과장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sup>18)</sup> 69년에 루쿨루스(Lucius Licinius

13) Movsēs Xorenac'i 1.30.

14) Manandyan 2007: 46-47.

15) Strab. 11.14.15; 12.2.9; Plut. *Vit. Luc.* 26.1.

16) Movsēs Xorenac'i 2.16, 19, 49, 65; 3.35; P'awstos 4.24, 55.

17) Movsēs Xorenac'i 2.12.

18) 아피아누스는 루쿨루스가 2개의 군단과 500명의 기병으로 250,000명의 보병과 50,0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아르메니아군을 상대했다고 전한다(App. *Mith.* 12.84-85). 플루타르쿠스는 그가 부관 무네라(Lucius Licinius Munera)로 하여금 6,000명의 보병으로 티그라노케르타를 공위하게 하고 나머지 10,000명 남짓한 24개 대대와 1,000명 정도 되는 기병, 투석병, 궁병 등으로 티그라네스의 야전군과 맞닥뜨렸다고 서술했다(Plut. *Vit. Luc.* 27.2). 에우트로피우스는 그가 고작 18,000명의 병력으로 600,000명의 중장기병과 10,000명의 궁병 및 무장병력을 무찔렀다고 했다(Eutr. 6.9).

Lucullus)가 많지 않은 병력으로 티그라노케르타를 점령할 수 있었던 대에는 그에 대응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맥락에서 티그라네스가 만든 극장에 초청됐었던 많은 수의 그리스 배우들이 이제는 루쿨루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축하공연에 고용됐고 여비까지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스트라보와 플루타르쿠스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하겠다.<sup>19)</sup>

이처럼 루쿨루스가 활약하게 될 제 3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은 기원전 74년 비티니아(Bithynia)의 왕 니코메데스 4세(Nicomedes IV)가 왕국을 로마에 유증한데 대한 미트라다테스의 반발로 시작됐다. 기원전 78년 술라가 사망하자 로마는 야심가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제 3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은 꿈을 실현시켜줄 좋은 기회였다.<sup>20)</sup> 78년 제 2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을 종결 짓기 위한 다르다누스(Dardanus) 조약 비준이 실패로 돌아가고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로마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미트라다테스는 로마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비티니아가 로마에 편입되면 폰투스와는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다. 미트라다테스는 신속하게 비티니아로 진군했으나 로마 측에서 파견한 루쿨루스와 코타(Marcus Aurelius Cotta)에게 패했고, 71년 아르메니아로 달아나 티그라네스에게 의탁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70년 코타가 로마로 복귀하게 되면서 동방에서의 전권을 쥐게 된 루쿨루스는 티그라네스에게 사절을 보내 미트라다테스의 송환을 요구했고 티그라네스는 이를 거절했다.<sup>21)</sup> 아피아누스에 따르면, 루쿨루스는 자신의 기습 의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한다.<sup>22)</sup> 모세스는 페니키아의 프톨레마이시스(Ptolemais)에

19) Strab. 12.2.9; Plut. *Vit. Luc.* 29.4.

20) Plut. *Vit. Luc.* 5-6.

21) Phot. *Bibl.* (Memnon) 224.31.2.

22) App. *Mith.* 12.83-84.

서 원정 중이던 티그라네스가 바이쿰(Vaykun)이라는 도적의 습격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다고 전하는데, 이 바이쿰은 아마도 루쿨루스를 가리키는 것 같다.<sup>23)</sup> 어쨌든 루쿨루스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69년 티그라노케르타 전투에서 패한 티그라네스는 이듬해 미트라다테스와 함께 아르탁사타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여 간신히 로마군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쿨루스의 군대가 더 이상의 진군을 거부하고 폭동의 조짐마저 보이자, 로마는 루쿨루스를 소환하고 또 다른 야심가인 폼페이우스를 파견했다. 폼페이우스는 신속하게 미트라다테스를 몰아내고 티그라네스를 압박해 들어갔는데, 동쪽의 파르티아마저 아르메니아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티그라네스는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폼페이우스와 평화 협정을 맺었다.

미트라다테스 전쟁 내내 티그라네스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트라다테스를 추격한답시고 아르메니아 본토로 기습공격을 감행한 루쿨루스와 이후 폼페이우스의 정복 전쟁은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24)</sup>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조차 이들의 침략 전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sup>25)</sup> 그러나 군공이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력을 대신해주리라 믿었던 야심가들과 원로원보다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유능한 지휘관에 충성하기로 마음먹은 군인들에게 원로원의 비난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 루쿨루스와 폼페이우스가 막대한 부를 거머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플루타르쿠스가 옳게 지적했듯, 머지않은 미래에 삼두(Triumvirate)의 한 축을 담당할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가 카라이(Carrhae)에서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

23) Movsēs Xorenac'i 2.14; Manandyan 2007: 70.

24) 손태창 2000: 127-132.

25) Cic. *De imp. Cn. Pomp.* 23; Plut. *Vit. Luc.* 33.4

명 또한 여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26)</sup>

로마의 추격은 미트라다테스가 흑해 연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66년 아르탁사타에서 폼페이우스와 티그라네스 간에 평화 협정이 맺어졌다. 티그라네스는 적지 않은 배상금을 지불한 대가로 이후 10년 더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왕 중의 왕’ 칭호도 계속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미트라다테스 전쟁 동안에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대부분의 군소 왕국들이 로마와 파르티아에 흡수 통합되면서 아르메니아 왕국은 로마와 파르티아의 접경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완충국가(buffer state)가 되고 말았다.

#### 4. 네로의 아르메니아 전쟁

티그라네스 2세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르메니아의 아르탁시아스 왕조(Artaxiad dynasty)는 기원전 2년 티그라네스 4세를 끝으로 몰락했고, 아우구스투스가 메디아 아트롭아테네(Media Atropatene)의 왕이었던 아리오발자네스(Ariobarzanes)를 새로운 아르메니아 왕으로 임명하면서 이중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패권을 잡은 뒤, 기원전 20년에 파르티아와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였다. 그는 기원전 53년 파르티아 황제 프라테스 4세(Phraates IV)로부터 크라수스가 카라이에서 당한 치욕적인 패배와 함께 빼앗겼던 로마 군기와 포로들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파르티아에서 추천한 아르메니아 왕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약 내용은 로마에서 승리로 포장되어 제국 전역에 널리 선전되었

26) Plut. *Vit. Luc.* 36.7.

다.<sup>27)</sup> 아우구스투스가 아리오발자네스를 임명할 당시에도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에도 로마 황제들은 아르메니아 왕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으며, 폰투스, 유다িয়া(Judaea), 이베리아(Iberia) 등에서 친 로마적인 성향의 적임자를 찾아내 임명하곤 했다. 한편, 파르티아 황제들은 프라테스 4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황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아들들을 로마에 인질로 보낼 정도로 정치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했다.<sup>28)</sup> 서기 35년이 돼서야 파르티아 황제 아르타바누스 3세(Artabanus III)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장자 아르사케스(Arsaces)를 아르메니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티베리우스의 강경한 반발 및 대처로 무산되었고 대신 이베리아 왕의 동생 미트리다테스(Mithridates)가 아르메니아 왕에 임명되었다.<sup>29)</sup> 그러나 서기 51년 이베리아 왕 파라스마네스 1세(Pharasmanes I)의 아들 라다미스투스(Rhadamistus)가 삼촌 미트리다테스를 제거하고 아르메니아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라다미스투스가 왜 갑자기 아르메니아 왕위를 노렸는지는 불분명하다. 라다미스투스의 타고난 공격적인 성향을 아버지 파라스마네스가 의도적으로 아르메니아로 향하게 했다는 타키투스식의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고,<sup>30)</sup> 내부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장남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바깥으로 관심을 돌린 차남의 야심을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라다미스투스에게 쫓긴 미트리다테스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고르네아스(Gorneas) 요새로 피신했다. 주둔군 지휘관 카일리우스 폴리오(Caelius Pollio)는 황제가 임명한 왕을 보호할

27) *signis receptis*가 새겨진 주화들 (<https://www.coinarchives.com/a/results.php?search=signis> 참조)과 *Prima Porta* 입상; *Res Gestae* 29; Cass. Dio 54.8.

28) Strab. 16.1.28.

29) Tac. Ann. 6.31; Cass. Dio 58.26.3.

30) Tac. Ann. 12.44.

의무가 있었으나, 라다미스투스에게서 뇌물을 수수하고 미트리다테스를 내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족간 살해와 왕위 교체를 방관한 셈이 되었다. 이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포착한 파르티아 황제 볼로가이세스 1세(Vologaeses I)가 아르메니아에 쳐들어오면서 전쟁은 다시 로마와 파르티아 간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sup>31)</sup> 볼로가이세스는 당시 이베리아 왕가의 지배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아르메니아의 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마침내 54년 라다미스투스를 몰아내고 자신의 동생인 티리다테스를 아르메니아 왕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로 즉위시키는데 성공했다.

파르티아의 도발에 대한 로마의 대응은 단호했다. 네로는 동부 속주 군단들에게 병력을 충원하라고 명령했고 동부 변경 지역의 동맹 왕국들에게도 전쟁 준비를 명령했다.<sup>32)</sup> 그리고 당대 최고의 장군 가운데 한 명인 코르볼로를 갈라티아(Galatia)와 카파도키아 총독 겸 야전 사령관(*dux belli*)으로 파견했다.<sup>33)</sup> 코르볼로는 시리아 속주 총독 움미디우스 콰드라투스(Ummidius Quadratus)와 합류하여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한동안 시작되지 않았다. 55년 티리다테스가 별안간 전쟁 포로들을 송환하면서 화해를 요청했던 것이다.<sup>34)</sup> 양측은 일견 전의를 거두고 평화 협정 준비에 들어가는 듯 보였다. 로마 진영에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을 것이다. 아시아 속주의 부유한 도시였던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에선 이미 세바스테이온(Sebasteion) 신전의 빈 공간에 군신 아레스의 형상을 한 네로가 의인화한 아르메니아를 제압하는 모습을 조각해 넣어, 기존에 있던 브리타니아를 제압하는 클라우디우스의 부조와 좋은 짝을 이루었다.<sup>35)</sup>

31) Tac. *Ann.* 12.45-51.

32) Tac. *Ann.* 13.7.

33) Syme 1970: 38-39.

34) Tac. *Ann.* 13.37.

35) Smith 1987: pl. xiv; pl. xvi.



클라우디우스와 브리타니아(Smith 1987: pl. xiv)    네로와 아르메니아(Smith 1987: pl. xvi)<sup>36)</sup>

그러나 네로도 코르볼로도 애당초 전쟁을 그만 둘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56~57년 동안 오로지 병력을 모으고 훈련시키는데 집중한 코르볼로는 58년 볼로가이세스가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잠시 파르티아로 복귀한 틈을 타, 신속하게 아르메니아로 진군해서 아르탁사타를 점령했다.<sup>37)</sup> 59년에는 남서 방향으로 진군하여 티그라노케르타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sup>38)</sup> 코르볼로 측은 콤파게네, 이베리아 등 우방으로부터 병력과 병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반면, 볼로가이세스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티리다테스는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60년에 티리다테스는 도피를 선택했고, 네로는 빈 아르메니아 왕위에 카파도키아 왕가와 유다리아 헤롯 왕가의 피를 절반씩 물려받은 티그라네스 6세를 임명했다. 전공을 세운 코르볼로는 콰드라투스<sup>39)</sup>의 후임으로 시리아 속주 총독에

36) 파손된 네로의 두상은 별도 보관(Smith 1987: pl. xvii).

37) Tac. *Ann.* 13.34-41; Cass. Dio 62.19.4.

38) Tac. *Ann.* 14.23-25; Cass. Dio 62.20.1.



임명되었다.<sup>39)</sup>

로마와 아르메니아 양측 모두 이대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엉뚱하게도 61년 로마 측에서 세운 아르메니아 왕 티그라네스가 남쪽의 아디아베네(Adiabene)를 침략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티리다테스가 볼로가 이세스의 지원을 업고 티그라네스를 몰아내려고 했으나, 코르불로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좌절되었다.<sup>40)</sup> 티그라노케르타를 점령하려는 파르티아 군과 도시에서 농성에 들어간 티그라네스 및 로마군 간에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다. 시리아 속주 총독 코르불로는 접경지역에서 대기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네로는 이제 아르메니아 왕국을 아예 병합해서 속주화할 요량으로 파이투스(Lucius Caesennius Paetus)를 야전 사령관으로 삼아 병력을 파견했다.<sup>41)</sup>

그러나 코르불로는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에) 버금갔다면 충분한 명예를 얻었을 파이투스는 (코르불로의) 업적들을 평가 절하했다. 어떠한 살육과 전리품도 없었고 도시들을 공략하기 위한 공위는 유명무실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피정복민들에게 세금과 법률들을, 그리고 왕의 그림자 대신에 로마의 권리를 피정복민들에게 부과하겠노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sed neque Corbulo aemuli patiens, et Paetus, cui satis ad gloriam erat, si proximus haberetur, despiciebat gesta, nihil caedis aut praedae, usurpatas nomine tenus urbium expugnationes dictitans: se tributa ac leges et pro umbra regis Romanum ius victis impositurum.*

파이투스가 코르불로를 의식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르메니아를 속주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황제의 직

39) Tac. Ann. 14.26.

40) Tac. Ann. 15.3-5; Cass. Dio 62.20.2-3.

41) Tac. Ann. 15.6.

접적인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파이투스는 제5마케도니카(*Macedonica*) 군단과 폰투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에서 모집한 보조군 부대에 코르블로에게서 인수한 제4스키티카(*Scythica*) 군단과 제12폴미나타(*Fulminata*) 군단을 더했다. 로마군은 늘 군단과 비슷한 규모의 보조군을 함께 운용한다는 타키투스의 설명을 따른다면,<sup>42)</sup> 어림잡아 3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을 것이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코르블로의 제3갈리카(*Gallica*) 군단, 제6페라타(*Ferrata*) 군단, 제10프레텐시스(*Fretensis*) 군단과 보조군들까지 합류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 육상 전력의 약 1/5 규모가 아르메니아에 투입되는 셈이었다.<sup>43)</sup> 문제는 파이투스가 그다지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62년 파이투스의 진군은 아르사모사타(*Arsamosata*)에서 볼로가이세스의 본대에 의해 저지되었고, 이어서 란데이아에서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sup>44)</sup>

볼로가이세스는 로마와 전면전을 벌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승기를 잡은 파르티아 황제의 선택은 강경책이 아닌 유화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세를 몰아 군사원정을 단행하는 대신에 로마의 네로에게 서신을 보냈다. 자신이 파이투스와 군단들을 관대하게 처분한 사실을 강조했다. 티리다테스가 “성직의 의무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nisi sacerdotii religione attineretur*)” 왕관을 수여받기 위해 로마를 방문할 것이며, 사전에 로마군 지휘부에 설치된 네로의 군기와 조각상으로 가서 군단병들이 입회한 가운데 재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sup>45)</sup> 단서를 달았다는 것은 승리를 거둔 볼로가

42) Tac. *Ann.* 4.5; 13.8.

43) 네로 시기 로마 제국의 군단 수는 30개였다(Ban 2015: 28–29, table 1).

44) Tac. *Ann.* 15.10–15; Cass. Dio 62.21.1–4. 예레반 국립대학(Yerevan State University) 역사학부의 스테판안(A. Stepanyan)과 미나샨(L. Minasyan)은 이 패배가 로마인들에게 기원전 321년 삼니테인에게 패배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굴욕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tepanyan & Minasyan 2013: 20–22).

45) Tac. *Ann.* 15.24.

이세스 측이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넘지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들의 태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파이투스의 패전으로 실패를 맛본 네로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신중히 할 수밖에 없었다. 네로는 평화나 전쟁이나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국가의 최고위층(*primores civitatis*)’과 논의를 거친 결과, 불명예스런 평화보다 명예로운 전쟁을 택했다.<sup>46)</sup>

자신들이 빼앗아간 것(아르메니아)에 대해 (오히려) 요청하는 아만인들(파르티아 사절들)의 조롱을 간파한 네로는 불확실한 전쟁을 택할지 불명예스런 평화를 택할지 결정하기 위해 국가의 최고위층과 상의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파이투스를 혐오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무지로 인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 수년간 병사들과 적들을 겪은 코르볼로가 그 과업을 수행할 인물로 임명됐다.

*tum intellecto barbarorum inrisu, qui peterent quod eriperant, consuluit inter primores civitatis Nero, bellum anceps an pax inh[on]esta placeret. nec dubitatum de bello. et Corbulo militum atque hostium tot per annos gnarus gerendae rei praeficitur, ne cuius alterius inscitia rursus peccaretur, quia Paeti piguerat.*

63년 네로에 의해 다시 야전 지휘관으로 임명된 코르볼로가 결국 해결사로 나서게 되었다. 코르볼로는 먼저 로마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병력을 보강하여 막강한 전력을 갖추었다. 볼로가이세스와 티리다테스가 협상을 위해서 사절들을 파견하자 코르볼로는 그들을 백부장들과 함께 돌려보내며 로마 측 권고를 전하게 했다. 티리다테스에게는 왕국이 전쟁의 참화를 겪기 전에 종전할 것을, 볼로가이세스에게는 쌍방 간 피해를 보기 전에 파르티아인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을 것을 권했다. 계속해서 로마 황제는 이 전

46) Tac. *Ann.* 15.25.

쟁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파르티아 황제는 그럴 형편이 못되니 내부 단속이나 잘 하라는 식으로 충고했다.<sup>47)</sup> 이전에 로마에서 벌어진 협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코르볼로는 로마-아르메니아 접경지역에서의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자신의 충고가 단지 말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볼로가이세스는 전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티리다테스는 평화 조약 조인 장소를 과거 승전지인 란데이아로 정했다. 꺾끄러울 수도 있는 회담 장소에 대해 코르볼로도 의외로 불만이 없었는데,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병사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당했던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sup>48)</sup>

## 5. 란데이아 조약의 의의

서기 63년 로마와 파르티아가 맺은 란데이아 조약과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한 티리다테스 1세의 로마 방문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외교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투 차원에서 파이투스 패배했지만, 전쟁 차원에서는 코르볼로의 만회 덕분에 절대적인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추측컨대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착상황이 양 측의 평화 협상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부터 볼로가이세스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마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코르볼로의 위협이 통한 것이었을 수도, 파르티아의 내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파르티아 측

47) Tac. Ann. 15.27; Cass. Dio 62.23.1.

48) Cass. Dio 62.23.2.

목적이 이미 달성됐기 때문으로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하다. 애초에 파르티아의 목적은 로마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를 친 파르티아적인 완충국가로 만드는데 있었다. 그리고 과정이야 어찌됐건 이제 블로가이세스가 동생 티리다테스를 아르메니아의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했으니 그 목적을 이뤄낸 것이다.

란데이아에서 벌어진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sup>49)</sup> 코르블로와 티리다테스가 티리다테스의 막사 앞에서 양측의 기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말에서 내려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코르블로는 티리다테스가 위험천만한 모험을 거부하고, 안전하고 국가에 유익한 길을 택한 공을 추켜세운다. 티리다테스는 충성의 증표를 네로의 조각상 앞에 내려놓을 것이며 그것을 반드시 네로의 손으로 직접 돌려받을 것임을 약속한다. 둘은 이렇게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키스로 회담을 마친다. 며칠 뒤 티리다테스는 로마 측 막사를 방문해 군단병들과 기병들이 양옆으로 도열한 가운데 네로의 조각상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관을 내려놓는다. 이때 그가 내려놓은 관은 디아DEM(diadem)으로 대외적인 왕권을 나타내며 61년 블로가이세스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다른 관인 티아라(tiara)는 아르메니아 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며 54년 아르메니아 귀족회의에서 바친 것이다.<sup>50)</sup> 의식은 성대한 연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로마와 아르메니아 간 평화 조약은 3년 뒤인 66년 티리다테스 1세가 조약 이행을 위해 로마를 방문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티리다테스는 해로를 통해 신속하게 이동하면 1개월, 육로를 통해 느긋하게 이동해도 4개월이면 갈 거리를 굳이 9개월 동안 여행했다.<sup>51)</sup>

49) Tac. Ann. 15.28-29; Cass. Dio 62.23.2-4.

50) Stepanyan and Minasyan 2013: 27. 로마로의 여정 동안에 티아라는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셈이다.

51) Cass. Dio 63.2.1. 로마까지의 최단 이동경로와 소요시간 측정은 스탠포드대학교 서양고전학과에서 제작한 ORBIS 프로그램(<http://orbis.stanford.edu>)을 사용했다.

3,000기의 파르티아 기병과 그에 상응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수행했고 하루에 800,000 세스테르티우스를 소비하는 마치 개선식과도 같은 웅장하고도 사치스러운 행렬이었다.<sup>52)</sup> 당시 로마 제국의 1년 수입을 대략 20억 세스테르티우스로 잡는다면,<sup>53)</sup> 약 11%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티리다테스 일행의 로마 체재비와 아르메니아 복귀 비용까지 더한다면 실로 막대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네로는 나폴리까지 나아가 티리다테스 일행을 맞이했고 그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극진하게 대접했다. 갖가지 선물비용으로만 2억 세스테르티우스를 들였다고 한다.<sup>54)</sup> 티리다테스의 대관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물론 칼집에 고정시켜야 했지만, 칼도 그대로 찬 상태로 네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전에 자신이 코르블로의 진영에서 내려놓았던 디아DEM을 돌려받았다.<sup>55)</sup> 네로는 연회를 베풀고 심지어 직접 리라를 연주하기까지 했다.

네로가 티리다테스의 로마 방문에 왜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몇몇 황제들이 외부에서 온 사절들을 의도적으로 대중에 내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레나에서 파르티아에서 온 인질들을 마치 이국적인 동물처럼 잘 보이도록 자리배치를 했고, 클라우디우스도 비슷한 목적으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온 사절들을 이용한 적 있었다.<sup>56)</sup> 66년 로마를 방문한 티리다테스 역시, 타키투스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포로나 다를 바 없는 구경거리 (*ostentui gentibus quanto minus quam captivum*)” 정도로 여

52) Cass. Dio 63.1.2-2.2. cf. Plin. *HN* 30.16.

53) Scheidel and Friesen 2009: 73-74.

54) Cass. Dio 63.6.5.

55) Tac. *Ann.* 15.31; Suet. *Ner.* 13.2; Cass. Dio 63.2.4.

56) Suet. *Aug.* 43.4; *Claud.* 25.4.

겨지도록 기획됐을 가능성이 크다.<sup>57)</sup> 그로부터 약 170년 뒤 카시우스 디오는 이러한 네로의 ‘보여주기 식 행사’를 “불명예스러운(*αισχρόος*)” 것으로 간주하고 일관되게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한 반면, 코르볼로의 업적은 높이 추켜세웠다.<sup>58)</sup> 세베루스 알렉산더(Severus Alexander)의 측근으로 황제의 페르시아 원정(231-233)을 지지해야했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건 란테이아 조약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티리다테스와 볼로가이세스의 자녀들 몇몇이 로마에 인질로 보내졌다.<sup>59)</sup> 아르메니아로 돌아간 티리다테스는 파괴됐던 아르탁사타를 네로의 재정지원으로 재건하고 네로니아(Neronia)로 명명했다.<sup>60)</sup>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54년부터 63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된 전시상황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로마-아르메니아-파르티아 간 평화가 찾아왔고 야누스 신전의 문은 굳게 닫혔다.<sup>61)</sup> 란테이아 조약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접경지대에서의 평화는 116년 트라야누스 황제가 파르티아로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를 강제병합하고 속주화 하기까지 50년 넘게 유지되었다. 심지어 네로 사후 벌어진 로마의 내전 상황에도 파르티아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티리다테스 1세 이후 실제로 로마에서 대관식을 치른 왕은 없었지만, 파르티아 황제가 아르메니아 왕위 후계자로 선정한 아르사케스조 왕족을 로마 황제가 승인한다(달리 말하면,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지 못한 아르사케스조 왕족은 아르메니아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란테이아 조약의

57) Tac. *Ann.* 15.29, 31

58) Cass. Dio 63.1.1-7.1.

59) Tac. *Ann.* 15.30; Cass. Dio. 62.23.4.

60) Cass. Dio. 63.6.5-6, 7.2.

61) Suet. *Ner.* 13.2; RIC I 263-267, 269-271, 284, 287, 289, 291, 300, 302, 304, 306-309, 323-324, 326, 337, 339, 342, 347-351, 353, 354, 362, 366 (<http://www.ancientcoins.ca/RIC/index.htm>). 그러나 이 문은 이제 곧 유다이아(Judaea)에서 벌어질 전쟁(66-70)으로 인해 다시 열릴 것이었다. 사실상 네로의 치세(54-68) 내내 제국의 동쪽 변경은 계속해서 전시상황이었던 셈이다.

대원칙은 252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Shapur I/*Šāpur I*)가 아르메니아를 병합하기 전까지 지켜졌다.

## 6. 결 론

기원전 66년,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결과로 아르메니아 왕국은 로마의 동쪽 변경이자 파르티아의 서쪽 변경인 접경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로마의 대(對) 파르티아 전략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 실패 이후 험악했던 양국 관계는 기원전 20년 아우구스투스의 기지로 회복되었다. 아르메니아 문제는 파르티아가 추천한 아르메니아 왕위 후보자를 로마가 임명하는 형식으로 일단락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아르메니아 주변 왕가들에서 친 로마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황위계승이 걸린 빈번한 내분으로 개입의 기회를 놓치고 있던 파르티아는 서기 54년 같은 아르사케스조의 티리다테스 1세를 기습적으로 아르메니아 왕위에 앉힘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네로가 코르볼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르메니아 전쟁이 시작됐다.

코르볼로의 작전 수행은 로마의 기본전략이 반영된 것이었다. 동부 속주들의 방위를 재정비하고 아르메니아에서 로마의 우위를 되찾으면서 파르티아와의 전면전은 피했다. 그러나 승기에 고무된 네로가 지휘관을 파이투스스로 교체하고 아르메니아 병합을 시도하면서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결과는 서기 62년 란테이아에서의 뼈아픈 패배였다. 이듬해 네로가 ‘국가의 최고위층(*primores civitatis*)’과상의 끝에 다시 지휘권을 부여한 코르볼로가 사태를 수습하고 아



르사케스조 파르티아와의 란데이아 조약을 이끌어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 측에서 추천한 아르사케스조 왕족을 아르메니아 왕으로 승인하는 것, 그 일환으로 로마에서 네로의 주관 하에 티리다테스 1세의 대관식을 갖는 것이었다. 서기 66년 네로는 로마를 방문한 티리다테스 1세에게 왕관을 수여했고, 이 보여주기 식 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들었다.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 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양측에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아르메니아를 속주화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아르메니아 속주를 경영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수할 정도로 높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아르메니아를 속주화한다면 국경선은 대폭 확장될 것이고 그만큼 변경 방위는 어려워질 것이었다. 아르메니아 왕국은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남아있을 때 전략적 가치가 더 컸다. 란데이아 조약은 이러한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평화는 트라야누스의 파르티아 전쟁이 있기까지 5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아르사케스조 왕족을 로마가 아르메니아 왕으로 승인한다는 란데이아 조약의 대원칙은 서기 252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가 아르메니아를 병합할 때까지 지켜졌다.

(원고투고일 : 2019. 10. 4,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전략, 완충국가, 접경지대, 아르메니아 전쟁, 란데이아 조약, 황제 자문위, 국가의 최고위층, 네로, 코르볼로, 아르사케스조 아르메니아, 티리다테스 1세, 파르티아, 볼로가이세스 1세

<참고문헌>

Appianus, *Mithridates*

Cassius Dio

Cicero, *De imperio Cn. Pompeii*

*Eutropius*

*Justinus, Epitome*

Movsēs Xorenac'i

*Patmut'iwñ Hayoc or Buzandaran* attributed to P'awstos Buzand

Photius, *Bibliotheca*

Plutarchus, *Vitae Parallelae*

*Res Gestae divi Augusti*

Strabo, *Geographica*

Suetonius, *Divus Augustus*

\_\_\_\_\_, *Divus Claudius*

\_\_\_\_\_, *Nero*

Tacitus, *Annales*

반기현, 「서기 3~4세기 로마와 페르시아 접경의 아르메니아 왕국: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아르메니아 왕국의 그리스도교화」, 『서양고대사연구』 54 (2019), pp. 169-206.

배은숙, 「로마 군대에서 군사령관의 역할」, 『역사와 경계』 62 (2007), pp. 131-159.

손태창, 「미스리다테스 전쟁에 관한 연구」, 『사충』 52 (2000), pp. 109-133.

조영식, 「로마의 대(對)동방 군사정책: BC31~AD200」, 『군사』 86 (2013), pp. 123-155.

- Bedrosian, R. (tr.) (1985) *P'awstos Buzand's History of the Armenians*. New York.
- Bivar, A. D. H. (1983) 'The political history of Iran under the Arsacids', *CHI* 3.1: 21-99.
- Bournoutian, G. (2002) *A Concise History of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ime to the Present*. Pennsylvania.
- Campbell, B. (1993) 'Rome and Parthia', in J. Rich and G. Shipley (eds.), *War and Society in the Roman World*. London and New York: 213-240.
- \_\_\_\_\_ (2002) *War and Society in Imperial Rome 31 BC-AD 284*. London and New York.
- Chahin, M. (1987) *The Kingdom of Armenia*. London.
- Chaumont, M. L. (1976) 'L'Arménie entre Rome et l'Iran I: de l'avènement d'Auguste à l'avènement de Dioclétien', *ANRW* 2.9.1: 71-194.
- Colledge, M. A. R. (1967) *The Parthians*. London.
- Edwell, P. M. (2008) *Between Rome and Persia: The Middle Euphrates, Mesopotamia and Palmyra under Roman Control*. London.
- Fyre, R. N. (1984) *The History of Ancient Iran*. Munich.
- Gilmartin, K. (1973) 'Corbulo's campaign in the East', *Historia* 22: 583-626.
- Hovannisian, R. G. (ed.) (1997)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1, The Dynastic Periods: From Antiquity to the Fourteenth Century*. Basingstoke.
- Isaac, B. (1992) *The Limits of Empire: The Roman Army in the East*. Oxford.
- Kaizer, T. and Facella, M. (eds.) (2010) *Kingdoms and Principalities in the Roman Near East*. Stuttgart.
- Kee-Hyun Ban (2015) *Winning Hearts and Minds?: The Roman*

- Army in the Eastern Provinces under the Principate (27BCE–284CE)*. (King's College London PhD Thesis).
- Lang, D. M. (1983) 'Iran, Armenia and Georgia', *CHI* 3.1: 505–36.
- Lightfoot, C. S. (2005) 'Armenia and the eastern marches', *CAH* 12: 481–97.
- Luttwak, E. N. (2016)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Third*. Baltimore.
- Manandyan, H. (2007) *Tigranes II and Rome*. G. Bournoutian (tr.). Pennsylvania.
- Mann, J. C. (1979) 'Power, force and the frontiers of the empire' *JRS* 69: 175–183.
- Mattern, S. (1999)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 Millar, F. (1982) 'Emperors, frontiers and foreign relations, 31 B.C. to A.D. 378', *Britannia* 13: 1–23.
- Millar, F. (1993)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 Panossian, R. (2006) *The Armenians: From Kings and Priests to Merchants and Commissars*. New York.
- Raditsa, L. (1983) 'Iranians in Asia Minor', *CHI* 3.1: 100–15.
- Redgate, A. E. (1998) *The Armenians*. Oxford.
- Scheidel, W. and Friesen, S. J. (2009) 'The size of the economy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Roman Empire', *JRS* 99: 61–91.
- Smith, R. R. R. (1987) 'The imperial reliefs from the Sebasteion at Aphrodisias', *JRS* 77: 88–138.
- Soultanian, G. (2012) *The History of the Armenians and Mosēs Khorensats'i*. London.
- Stepanyan, A. and Minasyan, L. (2013) 'Great Armenia and Euphrates frontier in 60–s A.D. (conflict, ideas, settlement)',

*Journal of Armenian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Armenian Studies* 1: 14-33.

Syme, R. (1970) 'Domitius Corbulo', *JRS* 60: 27-39.

Thomson, R. W. (1976) *Agathangelos: History of the Armenians*. Albany.

\_\_\_\_\_ (1978) *Moses Khorenats'i: History of the Armenians*. Cambridge.

Wheeler, E. L. (1997) 'The chronology of Corbulo in Armenia', *Klio* 79: 383-97.

Whittaker, C. (1994) *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A Social and Economic Study*. Baltimore.

Whittaker, C. (1996) 'Where are the frontiers now' in D. L. Kennedy (ed.), *The Roman Army in the East*. Michigan: 25-42.

### Electronic Sources

CoinArchives (<https://www.coinarchives.com/a/>)

Digital Loeb Classical Library (<https://www.loebclassics.com>)

Lacus Curtius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home.html>)

ORBIS (<http://orbis.stanford.edu>)

Perseus Digital Library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Roman Imperial Coins (<http://www.ancientcoins.ca/RIC/index.htm>)

## Rome's Strategy against Parthia: Nero's War of Armenia (54-63CE) and the treaty of Rhandaia

Ban, Kee-hyun

This study re-investigates Nero's Armenian War of 54~63CE and the Treaty of Rhandaia to highlight the geostrategic importance of Armenia in the context of the Roman strategy against Parthia. Firstly, I will summarize the old debate on the question whether there was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Secondly, I will explain the processes of forcing the kingdom of Armenia to be situated in the contact zone(or the buffer zone) between the imperial powers of Rome and Parthia, and the crucial phases of Nero's Armenian War during the first century CE. Thirdly, I discuss the strategic intent to conclude the Treaty of Rhandaia in 63CE, which was followed by the coronation of Tiridates I by Nero at Rome in 66CE.

Since E. W. Luttwak's study on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was published, it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whether the Romans had their imperial strategy. There was a certain decision-making group in the Roman imperial court, who were able to 'establish' and 'maintain' a consistent strategy. The *primores civitatis*(foremost authorities of the state), the *consilium principis*(council of the princeps) in particular, acted as the closest advisers of the emperor at times of crucial decisions. Ultimately, it is probable that the military disposition, operation and logistics of the greater empires of Rome and Parthia, along with their frontier and foreign policies, were considered to have been relatively 'strategic' by people of the neighbouring kingdoms and tribal states.

In 66 BC, as the outcome of the Third Mithridatic War, the kingdom of Armenia was driven into the contact zone between the eastern frontier of Rome and the western frontier of Parthia, and therefore it first became

to have the geostrategic importance in the Roman strategy facing against Parthia. Rome's foreign relations with Parthia, which had been unsecured after Crassus' defeat and fall at the battle of Carrhae in 53BCE, were restored by Augustus' peace settlement in 20BCE. The Armenian question was resolved with the agreement that the Roman emperor appoints the king of Armenia whom the Parthian king of kings has recommended, but since then in practice the former would appoint the kings out of non-Armenian royal families while the latter often underwent civil wars of the Parthian succession. In 54CE the Parthian king of kings Vologaeses I raided Armenia and crowned his brother Tiridates I king of Armenia to take strategic superiority over the upper Euphrates. Nero decided to begin war against the Arsacid kings and appointed Gnaeus Domitius Corbulo as the *dux belli*(commander of war).

Corbulo conducted military operations based on the Roman strategy against Parthia. He strengthened the defence of the eastern provinces, restored hegemony over Armenia, and tried to evade a full-scale war with Parthia. However, the war became inevitable when Nero had placed Lucius Caesennius Paetus in command to annex Armenia, which was resulted in the serious defeat at Rhandeia in 62CE. Nero after sought advices from the *primores civitates* replaced Paetus with Corbulo who rectified the urgent situation and managed to draw up the Treaty of Rhandeia with the Arsacid kings in 63CE. The main agreement of the Treaty was that the Roman emperor approves of a Parthian prince as king of Armenia, thereby crowning Tiridates I by Nero at Rome. In 66CE Nero spent a huge budget on holding the clamorous coronation for his propaganda purpose.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venturing into a full-scaled war to incorporate the kingdom of Armenia into a province of either Rome or Parthia was not any good solution to the Armenian question. The province of Armenia undoubtedly would have required much m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control and defend the extended borderlands. It was strategically better option for both Rome and Parthia to maintain Armenia as a buffer state situated in the contact zone between them. The Treaty

of Rhandaia in 63CE was the outcome of considering their strategic interests. Henceforth the peace lasted for fifty years until Trajan's Parthian campaigns, but the kernel of the Treaty that the Roman emperor approves of an Arsacid royal blood as king of Armenia was maintained by 252CE when Shapur I of the Sassanid Persia annexed the kingdom.

Keywords : Strategy, Buffer state, Contact zone, Armenian war, Treaty of Rhandaia, *consilium principis*, *primores civitatis*, Nero, Corbulo, Arsacid Armenia, Tiridates I, Parthia, Vologaeses I